

趙光祖의 現實認識과 政治改革

서 인 희 *

<目次>

- | | |
|----------------|-------------------|
| I. 緒論 | III. 改革理念의 社會的 具現 |
| II. 現實認識과 政治認識 | IV. 結論 |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정암이 4년간의 정치행위에서 보여준 개혁운동이 성리학적 정치이념에 의거한 이상정치의 실현 과정이었음을 전제로 당대 정치 현실의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여 사회적 구현의 문제를 다루었다. 정암이 지향했던 道學에 근거한 至治의 이념은 廢朝時의 정치이념과 정치주체의 不在라는 문제인식에서 비롯된다. 여기에 전대의 虐政으로 나타난 국가의 기강과 법도의 붕괴, 민생의 피폐가 부른 사회적 여건의 변화는 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게 하였다.

이에 정암은 성리학적 정치이념이 一世紀 동안 나라의 근간이 되는 정치이념으로 명맥을 유지하였으나 대부분은 理想的 정치의 失蹤期로 진단한다. 그리하여 道學의 정립을 통한 至治의 實現이라는 개혁적 정치이념의 정립과 聖君賢相의 새로운 정치체제의 확립을 통한 이상정치의 목표를 수립한다. 出治의 根源者인 군주와 德治의 중심기능의 修行者인 大臣, 즉 재상의 道學에 근거한 至治가 이루어질 때 이상사회의 건설은 당연한 일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정암은 賢人君子의 정치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이를 위해 군주의 用

* 대전둔원고등학교 교사 / yawoorijin@hanmail.net

賢政治를 역설하였다.

이렇듯 이념과 체제의 정립을 기반으로 정암이 급선무로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로 인식한 것은 크게 言路의 開放과 利源의 根絶이었다. 언로의 개방 여부는 民本理念을 토대로 民衆의 뜻이 실현되는 정치이상의 실현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公論의 보장이 필요하며 또한 언로가 개방되어야 한다. 정암이 朴祥과 金淨의 愼氏復位上疏를 계기로 언로의 開放과 언관의 지위를 강화하고자 한 것도 여기에 기인한다. 이것은 또한 民意의 上達者로 自任하는 士類의 정치참여의 기반을 다지는 일이기도 하였다. 정암에게 있어 民意의 上達여부는 國家存亡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사안인 것이다. 이를 위한 제도적 측면에서의 언로의 개방과 사류의 정치참여의 기반 강화는 前代未聞의 개혁안이었던 것이다.

또한 전통 유가에서 군주나 대신의 私利 추구는 유가의 民本政治 실현에 가장 근원적인 장애물로 인식된다. 公道를 실행해야 하는 爲政者에게 私心이 아닌 ‘與民同樂의 公心’의 요구는 기본전제가 된다. 그러므로 정암은 義利와 公私의 분별을 통하여 정치 전반에 누적된 부조리를 전반적으로 개혁하여 民生을 돌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士類부터 君主에 이르기까지 모두 동일하게 公人意識을 갖기를 요구한다. 反正時 濫獲된 靖國功臣의 改正 문제는 利源의 塞絶을 통해 公道를 실행하고자 하는 현실적 개혁 방안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己卯士禍가 일어났으며 정암은 죽임을 당하고 정치이념은 좌절하게 된다.

그러나 정암이 정립한 士類에서부터 君主에 이르는 爲政者의 公人意識의 고취와 이를 통한 言路開放이라는 인간적, 제도적 장치는 조선조 中·後期の 政治史와 士林政治文化속에서 民本政治理念의 시행이라는 역사적 전통으로 남았다. 그리하여 정암은 조선 中·後期の 정치사상가들이 지향하는 바가 되었으며 유교정치사상사에 泰山北斗과 같은 존재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이다.

【주제어】 정암(靜菴), 현실인식(現實認識), 정치인식(政治認識), 정치이념(政治理念)

I. 緒論

우리나라에 들어온 유교이념이 經世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 역사적 전통은 삼국시대부터 일관적으로 지속된 것이었다.¹⁾ 그러나 理國과 修身의 기능을 유교와 불교가 각기 담당하던 高麗朝²⁾의 예를 보더라도 유교의 기능은 한정된 것이었다. 麗末부터 수용되기 시작한 성리학이 왕조 교체 세력의 정치이념이 되면서 유교는 사회질서 전반을 포괄하는 체제이념으로서의 특별한 기능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조선조 체제 개창 세력의 정책적 표방에도 불구하고 건국 후 약 1세기 동안에는 체제운영에 큰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였다.³⁾ 고려말의 정치적 혼란과 조선으로의 왕조교체라는 내외적 문제 상황에서 성리학적 정치원칙의 발현은 어려운 문제였던 것이다.

조선조 정치사에서 16세기 초는 정암 조광조의 등장과 함께 격변의 時期로 규정된다. 創業, 守成, 更張이라는 왕조사적 역사관에서 본다면 조선의 개창 이후 1세기를 유지해온 유교적 정치이념아래 시행된 여러 제도와 문물의 모순과 지양점은 頂點에 이른 更張의 시기였다. 儒敎的政治理念을 토대로 왕조의 변혁에 참여한 勳舊세력의 모순은 世祖代와 燕山君代에 이르러 極에 달하였다. 이에 대한 반동으로 일어난 중종반정은 燕山君代의 兩大士禍로 정치무대에서 벗어나 있던 士林을 중앙정치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한 계기가 되었다. 이렇듯 정치적 혁신을 바라는 시대적 요구와, 약 1세기 동안의 체제 정비 기간은 정암을 비롯한 士林에게 성리학적 정치이념을 실현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정암이 4년간의 정치행위에서 보여준 개혁운동은 성리학적 정치이념

1) 강광식, 『조선조 유교정치문화의 구조와 기능』,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p.3.

2) 『高麗史』, 卷6, (烈傳)崔承老 참조. “佛敎를 수행하는 것은 修身之本이요 儒敎를 實行하는 것은 理國之原……”

3) 강광식, 『한국정치사상사 자료선집』(조선시대 편) 편찬을 위한 예비 연구, 『한국의 정치와 경제』 제10집, 1997, p.358.

에 의거한 이상정치의 실현 과정이었다. 近世朝鮮의 유교정치문화의 특징인 思想의 淵源에 있어서는 孔孟思想을 기본적 바탕을 삼고 현실정치 체제라는 運用의 실천적 측면에서는 麗末부터 수용되기 시작한 朱子學의 道學思想에서 연원⁴⁾을 찾게 된 것은 정암의 등장에서 기인한 것이다. 정암의 성리학적 개혁사상은 조선조 개혁사상의 표본이 되었고, 그것이 조선조 정치사상의 전개 방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성리학이 이념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보다 확고한 통치이념으로 확립되어 갔으며, 그것의 담지자인 사림이 정치 주도세력으로 확립되어 갔다.⁵⁾ 그 이후의 정치사는 정암의 개혁정치의 좌절에 대한 반성 내지 그 발전적 계승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정암이 조선조 유교정치사에서 성리학적 정치이념을 개혁정치의 기치로 삼아 정치의 표본이 된 점을 주목하며, 더 근본적인 문제에 천착하여 당대 정치 현실을 바라본 정암의 문제 인식에서 출발하여 ‘현실에 어떻게 적용시켰는가’라는 사회적 구현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유교적 정치이념아래 개창된 조선의 1세기 동안의 적체된 모순의 문제점을 道學的 政治理念의 눈으로 진단해낸 정암의 정치 현실 파악과 그것의 사회적 구현 방안은 조선조 중후반기의 개혁적 정치사상가들의 지표가 되었던 바,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II. 現實認識과 政治認識

1. 靜菴의 現實把握과 改革理念

조선의 역사를 볼 때 개창이후 世宗代를 거쳐 成宗 末期까지의 一世

4) 강광식, 위의 책.

5) 손문호, 「조선조 중기의 개혁사상」, 『한국정치학회 96하계학술대회논문집』, 1996, p.3.

紀를 創業 守成의 盛時라 한다면 燕山君으로부터 壬辰倭亂까지의 一世紀는 頹靡를 보이기 시작하여 정치가 紊亂해지며 四大士禍가 일어나서 올바른 지도세력을 상실하고 임진왜란으로 말미암아 국토가 무너지는 禍亂을 겪게 되는 危難의 시기였다.⁶⁾

16세기 초는 盛時를 지난 조선의 역사가 危難의 시기로 들어서는 중대한 기로에 선 시점이었다. 정암이 처한 현실은 一世紀間의 모순이 頂點에 이르렀던 燕山君代의 疲弊를 역사적 유산으로 물려받은 상황이었다. 燕山君代의 “아래를 덜어내 위를 더하는 것을 일삼은”⁷⁾ 虐民의 法은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다. 거기에 兩大士禍로 인한 정치, 사회의 불안과 누적되어온 특권층의 비리는 성종조 이후 정치일선에 나선 士林을 다시 몰려나 학문을 닦을 수밖에 없게 하였다. 이러한 폭정은 1506년 成希顔, 朴元宗, 柳順汀 등의 거사 결과 중종을 추대하는 것으로 끝이 났다. 그러므로 중종의 역사적 소명은 어떻게 연산군 시대의 부정적 영향을 극복해 내느냐 하는 점에 걸려있었다.⁸⁾ 中宗은 前王代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하여 특별히 五倫의 도덕을 존중하였다. 성리학으로서 피폐된 시대를 바로잡고자 즉위 후 柳崇祖와 같은 經學에 정통한 사람들을 특별히 뽑아 經筵官으로 임명⁹⁾하는 등의 유교부흥정책을 펼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종초년의 정치현실은 “중종반정으로 정치의 담당자는 오직 훈구세력이었으며 초년에 나라를 담당하는 자들은 다만 無識한 功臣들 뿐이었다.”¹⁰⁾ 그러므로 중종은 1515년 中宗 10년의 謁聖試策問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6) 李相佰, 『韓國史(近世前期篇)』, 震檀學會, pp.19-21. 참조.

7) 李珣, 『栗谷全書』 卷5, 「萬言封事」, “燕山荒亂, 用度侈繁, 變祖宗貢法, 日以損下益上爲事.”

8) 윤천근, 「유학적 지식인의 꿈과 좌절이 갖는 철학적 의미구조-조광조를 중심으로」, 『退溪學』 6집, 안동대학교 퇴계학연구소, 1994, p.21.

9) 이현중, 「양반관료간의 대립과 분열」, 『한국사』 12권, 국사편찬위원회, p.198.

10) 李珣, 『栗谷全書』 卷5, 「萬言封事」, “中廟反正, 政當惟舊, 而初年當國者, 只是功臣之無識者而已.”

내가 寡德으로써 祖宗의 큰 基業을 이어 받아 政事를 임해서 잘 다스려지기를 바라온 지 십년이다. 그러나 紀綱이 서지 못한 것이 있고, 法度를 정하지 못한 것이 있다. 이러하고서 大成할 수 있는 효과를 바라니 어찌 어렵지 않겠는가? 여러 儒生들은 孔子를 배운 사람들이니 모두 堯舜時代와 같은 人君과 百姓에 뜻을 두었을 것이오, 大成이 있기를 바라는데 그칠 뿐이 아닐 것이다. 지금과 같은 때를 당해서 만일 높은 옛날의 善治를 이루고자 한다면 어느 것이 급선무가 되겠는가?¹¹⁾

중종 초기의 정치상황은 정치이념과 정치주체의 不在가 가장 치명적인 문제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 중종은 연산군대의 무너진 紀綱과 法度を 바로 세워 祖宗의 기틀을 중흥시키고자 하는 정치의 목표와, 유교적 이상정치인 堯舜의 정치를 이루고자하는 정치이념을 희망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이것을 이루어 나갈 주체세력으로 성균관의 유생들인 士林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사상이나 정책의 수립은 언제나 현실의 모순과 조건의 변화에서 비롯된다. 이것은 宋代에 정립된 성리학이 唐中葉의 농업생산력 발전에 따른 地主佃戶制의 확대라는 사회적 조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나타난 사상이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결국 개혁적 사상의 출현은 현상황의 모순을 극복하고자하는 현실 인식에서 출발한다. 연산군의 학정이 만들어낸 여러 사회 모순과 反正으로 왕위에 올라 새로이 국가의 기강을 세우고자 하는 중종의 개혁적 모습은 사림의 영수로 떠오른 정암에게 개혁적 이념의 기치를 세우고 실현시킬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암은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

11) 趙光祖, 『靜菴集』 卷2, 「對策」, “予以寡德, 承祖宗丕基, 臨政願治, 于今十年. 而紀綱有所未立, 法度有所未定. 如此而求有成之效, 豈不難哉? 諸生, 學孔子者, 皆有堯舜君民之志, 不止於有成而已. 當今之時, 如欲致隆古之治, 何者爲先務?”

엿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政事와 文書道具의 末端으로써 紀綱과 法度の 근본을 삼지 마시고 한마음의 妙用으로써 기강과 법도의 근본을 삼으셔서 이 마음의 본체로 하여금 광명정대하고 두루 통달해서 천지와 더불어 그 體를 같이하고 그 用을 크게 하시면 날마다 실시하시는 政事들이 모두가 道の 運用이 되고 紀綱과 法度は 세우지 않아도 서게 되었습니다.¹²⁾

治國하는 所以는 道일 따름이니, 이른 바 道는 率性を 의미합니다. 무릇 性이 모두 있는지라 道가 없는 곳이 없으니, 크게는 禮樂刑政으로부터 작게는 制度 文爲가 다 人爲의인 學을 빌지 않고 각기 當然之理가 있는 것이니 (中略) 循하면 國治하고 失하면 國難하여 잠시라도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¹³⁾

정암은 말단의 기술이나 몇 가지의 일시적 정책의 수립[政事]으로 인한 단순한 성공을 급하게 이루려 하지 말고 仁義를 바탕으로 하는 道學에 근거하여 마음을 닦는다면 옛날에 융성했던 성취를 저절로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道는 본성을 따르는 것이고 道理는 어디에나 있는 것이므로 道理에 어긋나는 강압적이고 인위적인 制度和 文物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도학이념에 근거한 정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백성의 생업이 편안하면 거의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또 朝廷의 기세는 형벌로써 부지할 수는 없는 것이며, 조정이 바르게 되면 아랫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마음으로 복종하게 됩니다. 刑法은 비록 폐기할 수는 없지만 단지 다스림의 보조 수단일 뿐이고, 그것에 다스림을 맡겨서는 안됩니다. 옛 사람들이 말하기를 “갓난아기를 돌보듯이 보호한다[如保赤子]”라고 하였으니, 진실로 갓난아기를 돌보듯이 할 수 있으면 백성들도 임금님 보기를 반드시 부모 모시듯 할 것입니

12) 趙光祖, 『靜菴集』 卷2, 「對策」, “伏願殿下, 不以政事文具之末, 爲紀綱法度, 而以一心之妙, 爲紀綱法度之本, 使此心之體, 光明正大, 周流通達, 與天地同其體, 而大其用, 則日用政事之際, 皆爲道之用, 而紀綱法度, 不足立而立矣.”

13) 趙光祖, 『靜菴集』 卷2, 「對策」, “所以治國者, 道而已, 所謂道者, 率性之謂也. 蓋性無不有, 故道無不在, 大而禮樂刑政, 小而制度文爲, 不假人力之爲, 而莫不各有當然之理. ……循之則國治, 失之則國亂, 不可須臾之可離也.”

다. 이런 방식으로 오래 지나다보면 어찌 다스림의 효과(治化)를 보기 못할까 근심하겠습니까?¹⁴⁾

나라의 기강을 세워 백성을 다스리는 근본 또한 刑法과 같은 단순한 보조 수단에 의지하지 말고 仁義禮樂에 근본한 至治를 이룬다면 백성들이 감화되어 변화하게 된다고 한 것이다. 이것은 『孟子』, 「梁惠王」편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孟子가 梁惠王을 만나니 양혜왕이孟子에게 “선생께서 불원천리하고 이렇게 와주셨는데, 우리나라를 이롭게 할 방안을 가지고 오셨는지요?”하니孟子가 말하길 “왕은 어찌 하필이면 이롭게 할 것을 따지십니까? 역시 仁義가 있을 따름입니다.”¹⁵⁾

맹자가 단호하게 仁義에 근본한 王道政治를 주장한 것과 같이 정암이 仕路에 들어서면서부터 4년여의 정치활동 기간 동안 개혁의 이상으로 두었던 것은 한결같이 德治와 禮治를 통해 至治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었다. 또한

배우는 사람이 聖賢이 될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반드시 聖賢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니며, 임금 된 사람이 唐虞三代를 목표로 한다고 꼭 唐虞三代의 다스림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뜻을 이와 같이 세우고 格物致知와 誠意正心에 전념한다면 점점 聖賢의 경지와 堯舜의 政治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¹⁶⁾

14) 趙光祖, 『靜菴集』 卷4, 「元子輔養官時啓二」, “百姓安業, 則庶幾無憂矣. 且朝廷氣勢, 不可以刑罰扶之, 朝廷既正, 則下人自然心服矣. 刑法雖不可廢, 只可以輔治, 不可以出治也. 古人云, ‘如保赤子’; 愛民誠能如愛赤子, 則民之視上, 亦必如父母也. 如是而持之悠久, 則何患治化之不成乎?”

15) 『孟子』, 「梁惠王上」, “孟子見梁惠王, 王曰, ‘叟不遠千里而來, 亦將有以利吾國乎?’; 孟子對曰, ‘王何必曰利? 亦有仁義而已矣.’”

16) 趙光祖, 『靜菴集』 卷3, 「侍讀官時啓六」, “學者以聖賢爲期, 未必卽至聖賢之域, 人主以唐虞三代爲期, 未必卽致唐虞三代之治. 然立志如此, 而用功於格致誠正,

라고 하여, 요순정치를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이상이 너무 높다 하더라도 개혁적 이념을 목표로 삼아 전념한다면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정암은 前代의 붕괴로 인해 사회의 전반적인 개혁을 이루어야 하는 급박한 시기에 仕路에 들어섰다. 그러나 정암이 기치로 내세운 정치이념은 오히려 ‘복고적 요순정치의 회복’ 즉 道學의 정립을 통한 至治의 實現이었다. 이를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道는 心이 아니면 의지하여 세울 수 없고, 心은 性이 아니면 의지하여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人主된 자는 진실로 天理를 살피고 그 道에 處하고 그 誠을 말미암아 그 일을 행하면 다스림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¹⁷⁾

道는 遙遠하고 形而上學的인 것이 아니라 현실과 밀착되어 있어 사람이 성실하게 行하지 않으면 이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헛되이 고원한 데 뜻을 두고 실질적인 공부를 착수하지 않는다면 날로 허망한 곳으로 흘러갈 것이다.”¹⁸⁾라고 경계하였다.

정암은 성리학적 정치이념이 一世紀 동안 나라의 근간이 되는 정치이념으로 명맥을 유지하였으나 世宗時와 成宗時의 잠시를 제외한 대부분은 이상적 정치의 失蹤期로 진단하고 있다. 그러므로 世祖, 成宗祖를 지나 燕山君代에 이르러 고질화된 폐습과 폐단을 개혁할 것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則漸至於聖賢之域, 堯舜之治矣.”

17) 趙光祖, 『靜菴集』 卷2, 「對策」, “雖然, 道非心, 無所依而立, 心非誠, 亦無所賴而行. 爲人主者, 苟以觀天理而處其道, 由其誠而行其事, 於爲國乎何難?”

18) 趙光祖, 『靜菴集』 卷3, 「侍讀官時啓六」, “若徒騫高遠, 而不下實功, 則日趨浮虛之地而已.”

祖宗의 舊章은 비록 함부로 뜯어 고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만약 현실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변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中略) 대신과 시종을 불러서 가부를 의논하여 할 수 있는 일은 단연코 행함이 가합니다.¹⁹⁾

즉, 累代로 이어져 내려온 舊習 등을 갑자기 고칠 수는 없으나 그것이 민생과 시대의 흐름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면 반드시 현실에 맞추어 과감하게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암을 비롯한 성리학과의 設施에 대해서는 그것이 지나치게 急進의 이요 過激한 것이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²⁰⁾ 그러나 그것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1세기 동안 누적된 현실의 모순과 그로인해 드러난 제반 조건의 변화가 가져온 역사적 소명이었다. 이에 대처하는 성리학적 지식인의 이상적 정치이념의 정립과 그것을 현실에 구현하고자 하는 개혁적 실천의지는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암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당면의 과제는 새로운 개혁적 정치이념의 정립이었으며 그것은 도학에 근거한 지치주의 이념이었던 것이다.

2. 聖君賢相의 政治體制

유교정치에서 君主는 出治의 근본으로 그 地位가 설정된다. 그 出治의 근본적 의미는 天理와 人倫에 따르는 聖君으로서 德政을 전개한다는 王道의 志向에 있다.²¹⁾ 정암은 군주의 所任은 유교의 근본정신인 內聖外王之 道를 구현하는 것, 道學에 근거한 至治를 실현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곧 道의 遂行 與否는 사람, 즉 군주가 제1의 관건이 되는 것이다. 그

19) 趙光祖, 『靜菴集』 卷3, 「檢討官時啓四」, “祖宗舊章, 雖不可猝改, 若有不合於今者, 則亦可變而通之. …… 召對大臣或侍從, 論議其可否, 可爲之事, 則斷而行之, 可也.”

20) 현상윤, 『조선유학사』, 현음사, 2003, p.53. 참조.

21) 조남옥, 「조광조의 정치이념과 그 현실의 모색」, 『東洋哲學研究』 제1집, 동양철학연구회, 1980, p.145. 참조.

러므로 도학의 연마를 治者의 조건으로 확립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經筵 등을 통해 군주에 대한 도학교육을 강화하였던 것이다²²⁾. 이에 대해 율곡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靜庵이 經筵席上에서 崇正學, 正人心, 法聖賢, 興至治의 說로 反覆 啓達하였으며 (中略) 致君經濟로 뜻을 삼아 아는 것을 말하지 않음이 없고, 清流를 다수 이끌어 朝廷에 布列하여 近代 拘常의 習을 개혁함으로써 古先哲王之 軌를 遵行하고자 하였다.²³⁾

靜庵이 경연석상에서 道學의 本令으로 삼은 崇正學, 正人心, 法聖賢, 興至治의 이념을 反覆하여 君主에게 강조한 것은 君主의 지향하는 바와 마음 씀이 곧 出治의 근원이었던 까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향하는 바와 마음 씀에 대해서는 “古人이 이르기를 顏子를 희구하면 顏子가 되는 것이라 하였으니, 그 要는 用心을 굳게 하는 것이며, 用心이 剛健하면 善을 행하기란 어렵지 않은 것²⁴⁾”이라고 하여 用心을 굳게 할 것과 理想으로 志向하는 바를 聖人の 그것에 두고 매진해야 善治를 이룰 수 있다고 하였다.

유가의 정통적 사유체계에서도 不義의 군주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爲政者보다도 君主에게는 聖人에 뜻을 두어야 하는 立志가 근본적 문제라고 여겼다.

천하를 다스리는 자는 먼저 그 立志를 올바르게 하여 異端의 邪說에 移·惑되지 않고 斯道의 精進에 盡力하여야 한다.²⁵⁾

22) 손문호, 앞의 논문, p.43.

23) 李珣, 『栗谷全書』 卷28, 「經筵日記」, “經席之上, 每以崇道學 正人心 法聖賢 興至治之說, 反覆啓達, …… 光祖遂以致君經濟爲志, 知無不言, 多引清流, 布列朝廷, 欲革近代拘常之習, 以遵古先哲王之軌.”

24) 趙光祖, 『靜菴集』 卷4, 「復拜副提學時啓十三」, “古人云, 希顏亦顏, 要在用心剛, 用心苟剛, 爲善不難矣.”

25) 『二程全書』 卷39, 「論王霸箴子」, “治天下者, 必先立其志, 正志先立, 則邪說

군주의 올바른立志는 올바른 도를 떠나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그런데立志의 문제는學問의 근본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君主의學德의問題는 매우 중요한 것이 된다.君主가堯舜之道에 뜻을 세워聖君을 지향하는 방법은 학문에 의해 가능하다는 것이다.君主가學問研磨에 소홀하게 되면 결국 정치의紊亂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정암에게 있어 합당한 최고의 모범이 되는 군주는世宗이었다.

世宗이 항시勤政殿에 앉아서大臣들과 더불어 힘써 연구하고善治를 도모하였는데黃喜와許稠는公務에서 물러가서도 옷을 풀지 못하였으니,不時에召對하게 될까 하여서였습니다.²⁶⁾

世宗이 학문의 연마에 힘쓸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善治를 이루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던 모습은 과연 최고의 지도자요, 出治의根源者로서 마땅히 만민의標準이 된다고 여겼다. 그 결과 조선조 1세기 간의 역사상“禮樂文物과 施爲制度가 周代와 방불하였다.”는 것이다. 정암이 당대의 무너진 현실을 재건하기 위해唐虞之治를 이루고자 하는立志와 이를 구현해 내고자하는 노력이야말로 군주가 해야 할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므로 중종에게

至誠之心으로 夙夜不怠하여 唐虞之治를 이루고 唐虞之俗을 일으키어(中略)東方을 泰和之域으로 올려놓고자 한 지 十年이 되었습니다.²⁷⁾

라 하고, 또 이르기를

不能移, 異端不能惑, 故力進於道而莫之御也.”

26) 趙光祖, 『靜菴集』 卷3, 「侍讀官時啓八」, “世宗常坐勤政殿, 與大臣勵精圖治, 黃喜 許稠公退, 不得解衣, 恐有不時召對也.”

27) 趙光祖, 『靜菴集』 卷2, 「對策」, “以至誠之心, 夙夜不怠, 唐虞之治, 何以而致也, 唐虞之俗, 何以而興也.……欲躋東方於泰和之域者, 于今十年于茲矣.”

우리나라는 地方이 褊小하여 人君이 한마디를 말하면 팔도의 사람들이 하루 아침에 다 알 수 있습니다.²⁸⁾

라고 하여, 군주의 志向하는 바와 노력여부가 온 나라에 감화를 가져오는 다스림의 근본이 된다고 하여 누구보다도 굳건한 自修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정암이 군주를 出治의 根源者로 보아 學問研磨와 理想的 政治에 대한 立志의 문제를 강조하였다면, 德治의 중심기능의 修行者는 大臣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大臣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로는 임금을 감동시키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감화시키는 것도 그 책임은 大臣에게 있는 것입니다.²⁹⁾

國事가 大臣에게서 나오지 않으면 上下가 어긋나 不順하여 善治를 이룰 수 없습니다.³⁰⁾

대신은 위로는 군주로부터 아래로는 백성을 아우르는 중간자이며, 국가의 善治여부는 民意의 上達者인 대신들의 역할로 인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大臣의 자질은 국가 전체의 興亡盛衰와도 직결되는 것이다. 정암은 연산군대의 정치적 문란과 기강의 와해에 대해서 “燕山君 때에는 宦侍가 昏亂을 선동한 것이 아니었고 大臣들이 음흉하고 부정하여서 燕山主로 하여금 거의 나라를 亡하게 하였던 것”³¹⁾이라고 하여 나

28) 趙光祖, 『靜菴集』 卷3, 「參贊官時啓一」, “我國, 地方褊小, 人君發一言, 則八道之人, 一朝皆得聞知.”

29) 趙光祖, 『靜菴集』 卷3, 「大司憲時啓四」, “上以感動人主, 下以感化百姓者, 責在大臣.”

30) 趙光祖, 『靜菴集』 卷3, 「參贊官時啓一」, “國事不出於大臣, 則上下違拂不順, 而無以致治矣.”

31) 趙光祖, 『靜菴集』 卷3, 「參贊官時啓二」, “廢朝時, 則非宦寺煽亂也, 大臣險諛,

라를 혼란에 빠뜨리게 한 책임을 대신들에게 묻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암은 賢人君子의 정치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이를 위해 군주의 用賢政治를 역설하였다. 정암은 成宗朝의 用賢政治에 대해 다음과 같이 칭송하였다.

成宗初年에 士林을 배양하고 賢人을 좋아하며 諫言을 허락하니 일시에 善士가 堯舜之治를 회복하는듯 하였습니³²⁾

“賢人은 오직 義理만 안다”³³⁾고 하였듯이 참된 인간을 목표로 성리학 적 학문을 도야한 士林을 정치 일선에 布列하는 것은 理想社會 具現에 필수요건이 된다. 정치는 군주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지도자인 군주와 대신의 보필로 이루어질 때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된다고 여기는 것이다. 마치 君主는 하늘과 같고 大臣은 四時와 같다는 것이다.

人君이란 하늘과 같고 臣下란 四時와 같으니 하늘이 스스로 행하고 사시의 運用이 없으면 만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人君이 自任하고 大臣의 도움이 없으면 모든 교화가 일어나지 못하옵니다. 다만 일어나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늘이 스스로 行하고 人君이 스스로 맡아서 한다면 하늘이 되고 人君이 되는 道를 크게 잃게 되는 것입니다.³⁴⁾

즉, 君主 혼자의 독단적 정치행위는 天理를 어기는 것과 같은 것으로 大臣들의 도움이 없는 교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정암은 “군주나 대신들은 모두 백성들을 위해 존재한다.”³⁵⁾는

使廢主幾於亡國.”

32) 趙光祖, 『靜菴集』 卷3, 「參贊官時啓二」, “蓋成宗初年, 培養士林, 好賢納諫, 一時善士, 以爲堯舜之治可復也.”

33) 趙光祖, 『靜菴集』 卷3, 「三拜副提學時啓三」, “賢者, 惟知義理而已.”

34) 趙光祖, 『靜菴集』 卷2, 「對策」, “君者如天, 而臣者四時也, 天而自行, 而無四時之運, 則萬物不遂, 君而自任, 而無大臣之輔, 則萬化不興焉. 非徒不興不遂而已, 天而自行, 君而自任, 則大失爲天爲君之道.”

생각을 갖고 있었으므로 군주나 대신들이 오직 힘쓸 것은 민생이지 개인적 권위나 사욕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선비가 세상에 태어나서 학문을 하는 것은 그 懷抱를 펼치어 生民에 도움이 되고자할 따름입니다. 孟子가 亞聖으로서 齊와 梁을 歷訪한 것은 어찌 다른 뜻이 있으리오? 다만 道를 行하고자 할 따름입니다.³⁶⁾

라고 하였으며, 生民을 포부로 政事에 임해 그 뜻을 펼쳤으나 “한사람이라도 제자리를 얻지 못하면 저자에서 종아리를 맞는 것 같이 생각”³⁷⁾ 하는 것이야말로 盡心を 다하는 士類의 마음이라고 하였다. 즉 사류의 책임의식이며 士林精神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조선조의 창업이후 政事에 관여한 官僚들은 詞章學을 연마해 과거에 오른 자들이었다. 이들 勳舊官僚들은 世祖의 찬탈과 燕山君의 폭정을 거치며 私利私慾을 앞세워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이에 정암은 도학정신의 道統을 이어 性理學的 義理精神에 근거하여 生民을 근본으로 여기는 士習을 정비하고자 하였다.

정암은 世宗朝와 成宗朝에 士氣의 培養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훗날을 생각하지 못하다가 燕山君時에는 결국 慘酷한 士禍를 일으키게 되었던”³⁸⁾ 역사적 경험을 통해 도학정신에 입각한 사람들을 정치의 주체세력으로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從來의 惰性和 特權意識을 拂拭하고 새로운 기풍을 일으켜 ‘萬世不拔之基’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이것은 정암이 급선무로 해결해야하는 당면한 정치 현실의 문제로 인

35) 趙光祖, 『靜菴集』 卷3, 「檢討官時啓六」, “夫君臣者, 爲民而設也.”

36) 趙光祖, 『靜菴集』 卷2, 「因不從改正功臣事辭職啓三」, “士生於世, 業爲學問者, 冀得展其懷抱, 有補於生民耳. 孟子以亞聖, 歷聘齊梁, 豈有他意乎? 但欲行其道而已.”

37) 趙光祖, 『靜菴集』 卷3, 「檢討官時啓六」, “伊尹言, 一夫不得其所, 若撻于市.”

38) 趙光祖, 『靜菴集』 卷4, 「復拜大司憲時啓五」, “不懷長遠之慮, 卒遇廢朝慘酷之禍.”

식한 것이며 당시의 상황이 문제해결에 가장 적합한 때라고 판단한 것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제 성학이 이미 고명하심에 이르렀사오니, 만약 이 시기를 잃어버린다면 후에는 다시 도모할 수 없을 것입니다.³⁹⁾

자고로 뜻있는 선비가 임금을 얻어 行道한 이가 심히 적습니다. 무릇 時란 것은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며 機란 것은 얻기 어려운 것입니다.⁴⁰⁾

군주인 中宗의 지향하는 바가 도리에 맞아 학문연마의 경지가 고명한 데 이르렀고 뜻있는 선비와 군주의 만남으로 인해 개혁을 단행할 제반 조건이 갖춰진 당시의 기회를 千載一遇로 여기며 개혁을 단행하고자 한 것이다.

이상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정암이 개혁이념과 개혁의 조건으로 제시한 도학정신에 입각한 이상사회의 건설과 이를 위한 聖君賢相의 정치체제는 조선의 정치사상사에 남을 중대한 개혁안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후의 유교정치사는 정암이 세운 이념과 체제의 기초 위에 시대의 변화에 따른 변용의 문제만 남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Ⅲ. 改革政治의 社會的 具現

1. 言路의 개방

累代의 歷史的 經驗을 精神的 유산으로 물려받은 정암에게 사림의 정

39) 趙光祖, 『靜菴集』 卷4, 「復拜副提學時啓十」, “今者, 聖學已至高明, 若失此機後不可圖.”

40) 趙光祖, 『靜菴集』 卷4, 「復拜副提學時啓八」, “自古, 有志之士, 得君行道者, 甚少. 蓋時易失而機難得也.”

치참여를 기반으로 급선무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인식된 것은 언론의 개방이었다. 言路란 여론이 정치에 흡수되는 그 기능, 과정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王道政治에서의 여론의 흡수는 당연하다 하겠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心之所同然者’로서의 義와 理를 본질로 爲民政治를 펼치고자하는 유교사상가들에게 있어 民心 즉 輿論은 善治의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⁴¹⁾ 이것은 정암이 34세에 調聖試로 仕路에 올라 가장 먼저 참여한 문제이기도 하였거니와 성리학적 유교정치를 기반으로 성립한 조선 조 士林政治文化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孟子』, 「梁惠王」편에는 다음과 같은 기술을 볼 수 있다.

(前略) 좌우 신하들이 모두 그를 훌륭하다 말해도 등용하지 마시고, 여러大夫들이 모두 훌륭하다 말해도 등용하지 마시고, 나라 사람들이 모두 훌륭하다 말한 뒤에야 그 인물됨을 자세히 살펴보고, 실제로 그가 훌륭한지 확인한 뒤에 등용하여야 합니다. 좌우 신하들이 모두 그는 안 된다 말해도 듣지 마시고, 여러 대부들이 모두 안 된다 말해도 듣지 마시고, 나라 사람들이 모두 안 된다 말한 뒤에야 그 인물됨을 자세히 살펴보고, 실제로 그가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한 뒤에 버리셔야 합니다. 좌우 신하들이 모두 그를 죽여야 한다 말해도 듣지 말고, 여러 대부들이 모두 죽여야 한다고 말해도 듣지 말고, 나라 사람들이 모두 죽여야 한다고 말한 뒤에야 그를 자세히 살펴보고, 그가 정말로 죽일만한가 확인한 뒤에 죽이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를 나라 사람들이 죽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야만 백성의 부모라 할 수 있습니다.⁴²⁾

맹자는 王道政治의 기본은 大臣이나 大夫 등 소수의 私意에 의한 것이 아닌, 모든 백성들이 갖는 不偏不黨한 公道, ‘心之所同然者’로서의 객

41) 김호성, 「정암 조광조의 정치사상논고」, 『論文集』 15집, 서울교육대학교, 1982, p.43. 참조.

42) 『孟子』, 「梁惠王下7」, “……左右皆曰賢, 不可也, 諸大夫皆曰賢, 未可也, 國人皆曰賢然後, 察之, 見賢焉然後, 用之. 左右皆曰不可, 勿聽, 諸大夫皆曰不可, 勿聽, 國人皆曰不可然後, 察之, 見不可焉然後, 去之. 左右皆曰可殺, 勿聽, 諸大夫皆曰可殺, 勿聽, 國人皆曰可殺然後, 見可殺焉然後, 殺之. 故曰國人, 殺之也. 如此然後, 可以爲民父母.”

관성과 보편성을 담지한 백성들의 公論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율곡은 더 나아가 “公論이 있는 바가 바로 國是”⁴³⁾라고 하여 公論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言論이, 言路가 막혀 조정에 있지 못하고 民衆에서 머무르고 말거나, 언론자체가 不在하면 국가는 亂하거나 亡한다”⁴⁴⁾라고 하여 언론의 개방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다. 이렇듯 언론의 개방 여부는 民衆의 뜻이 실현되는 民本政治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士林에게 국가의 存亡과 정치이념의 成敗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된다. 정암도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言路가 통하느냐 막히느냐의 문제가 국가의 운명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언론이 통하면 平安하고 막히면 亂하게 된다. 그러므로 人君은 언론을 넓히는 데 힘써서 모든 백성이 말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⁴⁵⁾

民意의 자유로운 소통과 정치적 반영으로 직결되는 言路가 개방되어 있을 때 나라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주는 ‘마땅히 언제나 臺諫이 곧은 말을 항의하지 못할까를 두려워해야’⁴⁶⁾ 한다. 언론이 막혀 군주에 拒諫의 잘못이 있게 되면 국가의 大事에 求言을 못할 때 進言할 사람이 없게 될 뿐만이 아니라 公論에 의한 정치가 불가능⁴⁷⁾하게 되어 국가가 亂亡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므로 정암은 司諫院 正言時에 朴祥과 金淨의 愼氏復位上疏을 계기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하였던 점을 찾아 볼 수 있다.

-
- 43) 李珣, 『栗谷全書』 卷7, 「辭大司諫兼陳洗滌東西疏」, “公論之所在, 謂之國是.”
 44) 李珣, 『栗谷全書』 卷7, 「代白參贊仁傑疏」, “公論在於朝廷, 則其國治, 公論在於閭巷, 則其國亂.”
 45) 趙光祖, 『靜菴集』 卷2, 「司諫院請罷兩司啓一」, “言路之通塞, 最關於國家. 通則治安, 塞則亂亡. 故人君務廣言路, 上自公卿百執事, 下至閭巷市井之民, 俾皆得言.”
 46) 趙光祖, 『靜菴集』 卷4, 「復拜副提學時啓三」, “人君當常恐臺諫之不能抗直也.”
 47) 조남욱, 앞의 논문, p.161.

朴祥등은 마땅히 말을 구하여 말을 여쭙이온데 비록 지나치더라도 쓰지 않을 뿐이지 어찌 또한 이를 죄하리까? 臺諫이 이에 다시 죄를 청함은 스스로 言路를 해치는 것이니 크게 그 직분을 잃은 것입니다. 신이 지금 정언이 되었는데 어찌 감히 그 직분을 망각한 자와 더불어 臺諫에서 같이 일하겠습니까? 서로 용납지 못할 것이오니 청컨대 苻 등을 파직시키고 다시 언로를 열어야 하옵니다.⁴⁸⁾

누구든지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기회의 허용과, 언로의 개방을 책임지는 대간의 직분보장이 그것이었다. 이것은 언로의 개방과 諫官의 기능강화라는 제도적 마련과도 상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간의 직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일갈하였던 것이다.

臺諫은 言路를 開通시킨 이후에 그 職을 다했다고 할 것이다.⁴⁹⁾

언로의 개방과 언관의 지위 강화의 문제는 사람의 정치참여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다. 道學을 연마하여 군주를 보필하고 民意를 上達하는 역할을 자처하며 仕路에 들어선 사람과 언관의 자리는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므로 언로의 開放과 지위 강화는 사람의 정치참여와 불가분의 관계인 것이다.

그런데 公論에 귀 기울여야 하는 君主는 항상 궁중에 깊이 있어 단절되기 쉬우므로 늘상 외부의 일을 알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정암은 “비록 進講이 아니더라도 때때로 數三의 儒臣을 불러서 더불어 상대하여 民間의 疾苦와 時政의 得失과 人物의 善惡을 모두 논의⁵⁰⁾”하

48) 趙光祖, 『靜菴集』 附錄卷五, 「年譜」, “朴祥等, 當求言而進言, 其言雖若過當, 不用而已, 何復罪之? 臺諫乃復請罪, 自毀言路, 大失其職. 臣今爲正言, 豈敢與失職臺諫同事乎? 不可相容, 請罷苻等, 復開言路.”

49) 趙光祖, 『靜菴集』 卷2, 「司諫院請罷兩司啓一」, “爲臺諫者, 能開言路, 然後可謂能盡其職也.”

50) 趙光祖, 『靜菴集』 卷3, 「侍讀官時啓二」, “雖不進講, 而時召數三儒臣, 與之相對, 民間疾苦, 時政得失, 人物善惡”

고 ‘어느 때든지 하여 무슨 일이든지 말하지 않음이 없고, 所懷를 다 吐露⁵¹⁾’하는 막히지 않는 소통을 할 것을 주문하였다.

정암이 성학을 연마한 군주가 현명한 재상의 보필을 받아 민의에 부합되는 王道政治를 펼치는 ‘至治’를 이루고자 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언로의 개방을 군주에게 주문하며, 대간의 지위를 보장하는 등의 구체적 실천 행위는 前代未聞의 개혁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암 이후의 언로의 개방 문제는 조선조 사람 정치문화의 특색이 되었으며 전통정신이 되었던 것이다.

2. 利源의 塞絶

정암에게 있어 정치이념의 확립과 이를 주도해 갈 정치주체세력의 정립이 萬世不拔의 기반으로 인식된 것은 重言의 여지가 없다. 정암이 이렇듯 萬世不拔의 터전을 마련하여 이루고자 하는 정치의 목표는 民本思想을 근본으로 하는 ‘인민을 잘 살게 하려는 것’이었음도 이미 주지하는 바이다. 이러한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위정자에게 私心이 아닌 ‘與民同樂의 公心’의 요구는 기본전제가 된다. 그러므로 爲政者의 義利,公私에 대한 명확한 판단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정암은 학문을 바탕으로 관료의 길에 들어서는 學者에 대해서

學者가 먼저 힘써야 할 것은 義利之辨보다 더 절실한 것이 없으니 私欲之萌이 利에서 비롯됨을 생각하여 그 根本을 뽑아버린 후에 학문에 안정할 수 있다.⁵²⁾

라고 하였고, 또 君主에 대해서도

51) 趙光祖, 『靜菴集』 卷3, 「檢討官時啓七」, “古者, 人君接群臣不時, 而事無不言, 所懷皆吐實.”

52) 趙光祖, 『靜菴集』 附錄卷2, 「語類」, “學者先務, 莫切於義利之辨, 私欲之萌, 皆出於利, 從念頭拔去根本, 然後可安於學矣.”

人主는 義利公私之辨에 있어서 명심해야 하는 바, 義利公私之辨을 알아 不惑하면 內外가 닦이고 심지가 맑아 是非好惡가 그 正을 얻으니 處事接物에 있어 不當함이 없게 된다.⁵³⁾

라고 하였다. 군주나 대신이 私欲의 根源이 利에 있음을 먼저 파악하고 義利公私에 대한 是非好惡의 公正性을 확보하여 政事에 임해야만 부당함이 없는, 民意에 부합되는 정치가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다.

私利의 추구가 결국 혼란과 패망을 초래한다는 것은 정통 유가사상의 인식과 맥을 같이 한다. 맹자는

利를 품고 서로 접하고서 망하지 않는 자가 있지 않다.⁵⁴⁾

라고 하여, 仁義에 근본하지 않은 利의 추구는 인간사회에 爭奪만이 난무하는 비정상적 혼란만을 가중시켜 결국 패망하게 되는 원인이 됨을 역설했다. 이처럼 개인이나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私利의 추구는 유가의 이상향인 大同社會의 건설이라는 원대한 목표에 가장 근원적인 장애물로 인식된 것이다.

그런데 정암이 처한 현실은 燕山君代에 權勢家들의 무도한 致富와 국가재원의 낭비, 그리고 중종반정 이후 무분별한 功臣의 남발로 인한 國利의 손실과 이로 인한 민생의 고통이 극심한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정암이 義利와 公私의 분별을 통하여 확보하고자 한 것도 정치 전반에 누적된 부조리를 전반적으로 개혁하여 민생을 돌보고자 한 것이며, 이러한 권세가들의 弊習이 개선되지 않고는 至治의 목표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믿었던 것이다.⁵⁵⁾

53) 趙光祖, 『靜菴集』 附錄卷5, 「年譜」, “人主於義利公私之辨, 不可不明審也, 苟能知義利公私之辨, 而不惑焉, 則內外修而心地清, 是非好惡, 皆得其正, 而至於處事接物, 無不當矣.”

54) 『孟子』, 「告子下」, “懷利相接, 然而不亡者, 未之有也.”

이것은 정암이 仕路에 들어선지 4년여 동안 혁신적인 개혁안으로 인해 士習과 民風이 크게 변모하는 듯 하였으나 역시 고질적인 病痛의 근원적인 개혁이 없이는 후대를 기약할 수 없다는 현실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문제의 핵심은 反正時 濫獲된 靖國功臣의 改正에 있었다. 정암이 司憲府 大司憲이 되어 陳啓하기를

靖國功臣은 이미 오래된 일이오나 그 처음에는 大臣이 만일 먼 생각이 있었고 臺諫이 만일 公論을 가졌더라면 어찌 개정하지 않았겠습니까? 成希顔은 비록 큰 공이 있으나 학식이 없었고 朴元宗도 또한 학자가 아닌데도 希顔은 柳子光과 더불어 서로 아는 사이이므로 大事를 마감할 무렵에 모든 간특한 사람에게 위임하였던 것입니다.⁵⁶⁾

靖國時에 황망한 중이라 조정 신하들의 식견이 높지 못하여 功臣과 官爵이 너무 지나치게 많았습니다. 소신이 근래 臺諫이 되어 國事를 행하고자 하여도 利源이 한 번 열리니 求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어 몸을 잊고 極言하옵니다. 평시라면 그만이었으나 혹 변고가 있게 된다면 비록 善함이 있는 자라도 그 뒤를 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임금님의 생각은 여기에 미치지 않으십니까? 이 弊端을 개혁치 않으면 社稷을 지탱할 수 없을 것입니다.⁵⁷⁾

라고 하여, 靖國功臣의 改正문제는 단초부터 小人들의 利에 관련된 일이었으므로 10여년의 세월이 지났다 해도 개정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밝혔다. 또한 잘못된 靖國功臣 濫獲의 문제로 利源이 한번 열리고 난 현

55) 이상성, 「정암 조광조의 도학사상 연구」, 成均館大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0, p.135. 참조.

56) 趙光祖, 『靜菴集』 附錄卷5, 「年譜」, “靖國功臣, 已久之事也, 其初, 大臣若有遠慮, 臺諫若持公論, 則豈不改正乎? 成希顔雖有大功而無學識, 朴元宗亦不學者, 希顔與柳子光相知, 故乃以磨勘大事, 委諸奸人.”

57) 趙光祖, 『靜菴集』 卷4, 「大司憲時啓一」, “靖國時, 遑遑之中, 朝臣識見不高, 功臣官爵, 猥濫太甚. 小臣近作臺官, 欲爲國事, 而利源一開, 莫知所救. 念及於此, 至欲忘身而極言之. 平時則已矣, 脫有變故, 則雖有善者, 亦不能善其後矣. 聖念豈不及此乎? 不革此弊, 則社稷將不能支持矣.”

재의 國政 운영의 어려움을 생각할 때, 이것은 후대의 國家存亡도 좌우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임을 極言으로 토로한 것이었다.

정암이 反正時에 “功臣을 策錄함에 僭濫된 것이 많으면 반드시 國事를 그르칠 뿐이다”⁵⁸⁾라고 생각한 것과 같이 현실의 모습은 “士大夫가 모여서 말하는 것은 다 一身의 計”⁵⁹⁾일 뿐이었다. 이에 대해

利源이 한번 열리면 국가의 고칠 수 없는 병이 되는 것이니 민심이 답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급히 개정을 논하고 싶었지만, 일이란 기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서야 비로소 거듭 말씀드립니다. 만약 利源을 통렬하게 막지 않으면 이욕에 사람이 쉽게 빠져서 차마 말할 수 없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⁶⁰⁾

라고 하여, 위정자들의 사리추구는 결국 민심에까지 미쳐 결국 나라를 병들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利源을 塞絶할 수 있는 不遇의 기회를 만났는데도 개혁이 단행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참혹할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그러한 결과로 全功臣 中 삭제된 공신이 76인에 이르는 成功을 거두게 되었다.

그러나 정암이 “우리나라가 開國 이래 士林의 禍가 끊이지 않아 君子가 國事に 힘써서 거의 성공할 때마다 敗亡하지 않은 때가 없었으니 심히 두려운 일이다”⁶¹⁾라고 하였듯이 훈구파의 반격으로 정암은 죽임을 당하였고 좌절하게 되었다. 이처럼 己卯士禍는 정국공신 개정의 문제, 즉 利源의 根絶을 계기로 일어난 사림의 재난이었다. 그리하여 정암을 영수로 하여 추진되던 民本중심의 개혁적 정치사상은 士類의 죽음과 함

58) 趙光祖, 『靜菴集』 卷2, 「兩司請改正靖國功臣啓二」, “反正時, 臣年二十餘矣, 與友相語曰, 今若錄功多濫, 則必誤國, 已而果然.”

59) 趙光祖, 『靜菴集』 卷3, 「侍讀官時啓十五」, “士大夫相聚而爲言者, 皆一身之計也.”

60) 趙光祖, 『靜菴集』 卷2, 「兩司請改正靖國功臣啓一」, “利源開張, 爲國家膏肓之疾, 人心壹鬱. 急欲論改, 而事有機會, 故今始重發. 若不痛塞利源, 則利欲人所易陷, 必有不可忍說之事矣.”

61) 趙光祖, 『靜菴集』 附錄卷5, 「年譜」, “大抵我朝, 自開國以來, 士林之禍不絕, 若有君子, 力於國事, 庶幾有成, 則無不敗之, 甚可懼也.”

께 묻혀지게 되었다.

그러나 정암은 그가 추구하였던 바를 獄中供辭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신의 나이 38입니다. 선비가 세상에 태어나 믿을 만한 바는 오직 임금의 마음 뿐입니다. 다만 국가의 病通이 利源에 있음을 헤아리어 國脈을 무궁토록 새롭게 하고자 하였을 뿐, 전혀 다른 뜻이 없사옵니다.⁶²⁾

즉, 公道를 막는 사리추구의 利源을 根絶하여 士習의 弊習과 弊端을 일거에 개혁하여 나라를 無窮토록 하는 실마리를 삼고자 한 것이며, 이것은 民本이념을 토대로 公人意識을 갖춘 나라의 인재를 만들어 국맥을 다지고자 한 것이다.

정암이 실현하고자 한 개혁적 방안은 公的意識을 갖춘 인재의 양성과, 그들로 의한 民意의 上達 즉, 언로의 개방이라는 제도를 갖추 民本政治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정암이 마련한 개혁정치적 제도 정립과 公道의 실행 과정은 유학의 民本정신에 근거한 조선조 정치사에 역사적 전통을 세운 것이라 할 것이다.

IV. 結論

본 논문은 정암이 4년간의 정치행위에서 보여준 개혁운동은 성리학적 정치이념에 의거한 이상정치의 실현 과정이었음을 전제로 당대 정치 현실의 문제 인식에서 출발하여 사회적 구현의 문제를 다루었다. 유교적 정치이념아래 개창된 조선의 1세기 동안의 적체된 모순의 문제점을 道學的 政治理念의 눈으로 진단해낸 정암의 정치 현실 파악과 그것의 사회적 구현 방안은 조선조 유교정치사의 근간을 이루었다.

62) 趙光祖, 『靜菴集』 卷2, 「獄中供辭」, “臣年三十八. 士生斯世, 所恃者君心而已. 妄料國家病痛, 在於利源, 故欲新國脈於無窮而已, 頓無他意.”

정암이 지향했던 道學에 근거한 至治의 이념은 廢朝時의 정치적 이념의 不在라는 문제인식에서 비롯된다. 전대의 虐政으로 나타난 국가의 기강과 법도의 붕괴, 민생의 피폐는 반정으로 군주의 자리에 오른 중종이 해결해야 할 역사적 소명이었다. 이에 정암은 개혁을 원하는 사회적 여건의 변화와 역사적 소명을 안게 된 군주의 출현으로 개혁을 단행할 千載一遇의 기회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정치적 이념의 정립과 새로운 정치체제의 확립을 통한 실천적 정치를 단행한다.

정암은 성리학적 정치이념이 一世紀 동안 나라의 근간이 되는 정치이념으로 명맥을 유지하였으나 世宗時와 成宗時의 잠시를 제외한 대부분은 이상적 정치의 失蹤期로 진단한다. 그러므로 요순지치의 이상사회를 정치의 목표로 삼았으며 이를 위해 道學의 정립을 통한 至治의 實現을 개혁적 이념으로 확립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유교정치에서의 군주는 出治의 근본이다. 君主의 지향하는 바와 마음 씀이 곧 出治의 근원이었던 까닭에 靜庵은 道學의 본승으로 삼은 崇正學, 正人心, 法聖賢, 興至治의 이념을 反覆하였다. 그리하여 군주의 所任이 유교의 근본정신인 內聖外王의 道를 구현하는 것, 道學에 근거한 至治를 실현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정암이 군주를 出治의 根源者로 보아 學問研磨와 理想的 政治에 대한 立志의 문제를 강조하였다면, 德治의 중심기능의 修行者는 大臣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위로는 군주로부터 아래로는 백성에 이르기까지를 아우르는 방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大臣의 자질은 국가 전체의 興亡盛衰와도 직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암은 賢人君子의 정치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이를 위해 군주의 用賢政治를 역설하였다. 또한 君主 혼자만의 독단적 정치행위는 天理를 어기는 것과 같은 것으로 大臣들의 도움이 없는 교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聖君賢相의 정치체제를 정립하였다.

이렇듯 이념과 체제의 정립을 기반으로 정암이 급선무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인식한 것은 언로의 개방 문제였다. 언로의 개방 여부는 民을 根本으로 民衆의 뜻이 실현되는 정치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士類에게 국가의 存亡과 王道政治의 成敗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

식된다. 그러므로 朴祥과 金淨의 愼氏復位上疏를 계기로 언로의 開放과 언관의 지위강화를 도모했으며 이를 통해 道學을 연마해 仕路에 진출하는 사림의 정치참여의 기반을 다지고자 하였다. 民意의 上達者인 사림을 통해 언로를 개방하고 언관의 지위를 보장하는 민본정치의 제도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民本思想을 근본으로 人民을 잘 살게 하려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爲政者에게 私心이 아닌 ‘與民同樂의 公心’의 요구는 기본전제가 된다. 군주나 대신의 私利 추구는 유가의 이상정치 실현에 가장 근원적인 장애물로 인식된다. 정암은 義利와公私의 분별을 통하여 정치 전반에 누적된 부조리를 전반적으로 개혁하여 민생을 돌보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권세가들의 弊習이 개선되지 않고는 至治의 목표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믿었던 것이다. 反正時 濫獲된 靖國功臣의 改正 문제는 利源의 塞絶을 통해 公道를 실행하고자 하는 현실적 방안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정암이 仕路에 들어선지 4년여 동안 혁신적인 개혁안으로 인해 士習과 民風이 크게 변모하는 듯하였으나 역시 고질적인 病痛의 근원적인 개혁이 없이는 후대를 기약할 수 없다는 현실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공도를 실행하고자 하는 공인의식을 갖춘 인재의 양성이야말로 국가의 존망을 결정짓는 큰 요인이 된다고 인식한 것이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己卯士禍가 일어났으며 정암은 죽임을 당하고 정치이념은 좌절하게 된다.

정암의 정치개혁이념과 현실의 구현방안이 너무 원칙적이고 급진적이었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理想社會 實現을 위한 이념과 社會的 具現에서 나타난 공인의식을 갖춘 인재의 양성과 그들에 의한 민의의 소통이라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당대의 현실을 뛰어넘어 조선조 中·後期の 政治史와 儒教政治文化속에서 보편정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로 인해 道學政治의 근간이 定立되었으며,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民本政治의 시행이라는 역사적 전통이 세워졌던 것이다. 그리하여 정암은 조선 中·後期の 정치

사상가들이 지향하는 바가 되었으며 유교정치사상사에 泰山北斗와 같은 존재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이다.

<參考 文獻>

『孟子』 『高麗史』 『二程全書』

李 珣, 『栗谷全書』

趙光祖, 『靜菴集』

강광식, 『조선조 유교정치문화의 구조와 기능』,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 『한국정치사상사 자료선집』(조선시대 편)편찬을 위한 예비 연구, 『한국의 정치와 경제』 제10집, 1997.

김호성, 「정암 조광조의 정치사상논고」, 『論文集』 15집, 서울교육대학교, 1982.

손문호, 「조선조 중기의 개혁사상」, 『한국정치학회 96하계학술대회논문집』, 1996.

윤천근, 「유학적 지식인의 꿈과 좌절이 갖는 철학적 의미구조-조광조를 중심으로」, 『退溪學』 6집, 안동대학교 퇴계학연구소, 1994.

李相佰, 『韓國史(近世前期篇)』, 震檀學會.

이상성, 「정암 조광조의 도학사상 연구」, 成均館大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0.

이현중, 「양반관료간의 대립과 분열」, 『한국사』 12권, 국사편찬위원회.

조남욱, 「조광조의 정치이념과 그 현실의 모색」, 『東洋哲學研究』 제1집, 동양철학연구회, 1980.

현상윤, 『조선유학사』. 현음사, 2003.

Abstract

*Jo, Kwang-jo's Recognition of Reality and Political Reform / Seo In Hee**

This thesis deals with social realization: starting from the recognition of political reality, with a precondition that Jeong Am's political reform is regarded as the process for ideal politics (on the basis of Neo-Confucianism).

His political ideas are based on a moral philosophy, originating from an awareness of problems that resulted in the absence of political ideals and political participation during the reign of King Yonsan.

Reforms with a sense of historical vocation were created following a collapse of national discipline and customs caused by previous tyranny, consequently, social changes were enacted by the impoverished livelihoods of the public.

Accordingly, Jeong Am described this period as a loss of ideal politics (even though Neo-Confucianism kept a root of national political idea). Therefore, he established an ideal political goal by setting reformable political ideas based on a moral philosophy within the wise and good king's new political system.

Jeong Am's ideal nation could be established when politics was established on the basis of the king's moral philosophy instead of originating from tyranny (a central function of a benevolent administration). Therefore, he encouraged wise men to participate in politics, and emphasized the monarch's employment of wise men.

Increased freedom of speech and exterminating personal profit gained through origin were thought to be the urgent issues of his ideal politics. Opening the way to more freedom of speech is the main factor for ideal politics to enable and realise true people's ideas. So, the politics need to assure public opinion thus

* DaeJeon Dunwon High School, Teacher / yawoorijin@hanmail.net

opening the way to more freedom of speech.

Park Sang and Kim Jeong's appeal of Shin's reinstatement served as a momentum needed, and he tried to reinforce more freedom of speech and expositulators' rank. This made it possible for classical scholars to participate in politics as a delivery of public opinions.

Jeong Am thought that a delivery of public opinions was an important

【Key words】 Jeong Am, Social realization, Recognition of political reality,
Political ideas

투고일 : 11월 10일, 심사일 : 11월 29일, 게재확정일 : 12월 7일